



북한 기도회

2022년 9-10월





기도제목 1.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참여에 따른 각종 경제협력 방안을 담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9월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고 핵 선제공격 감행 가능성을 열어둔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10월 4일에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앞으로의 비핵화에 큰 난항이 우려됩니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2.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 부족으로 인한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이 코로나 대유행과 수해 등 자연재해, 그리고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실은 7월 25일 북한에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연평균과 유사한 80만 톤 규모로 추정하고 있지만 미국 농무부는 이보다 많은 121만 톤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과 식량 부족 등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오픈도어선교회를 포함한 여러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핍박이 날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한 주민 통제와 반동사상문화법 등과 연계되어 강화된 단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적발 사례와 이로 인한 성도들의 안타까운 순교와 고난의 소식이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씨와 조선족 사역자들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억류된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견디고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4. 중국의 코로나 사태 해결과 선교 환경 조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이 2분기 경제성장률 0%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zero corona, 清零) 정책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은 국경개방을 원하지만 오히려 중국 측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이를 막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중국의 코로나 방역 상황 완화는 북한선교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현지 체류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 그리고 탈북자들의 누적된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중국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 또는 위드코로나로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선교사, 사역자,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속히 원활하게 북한선교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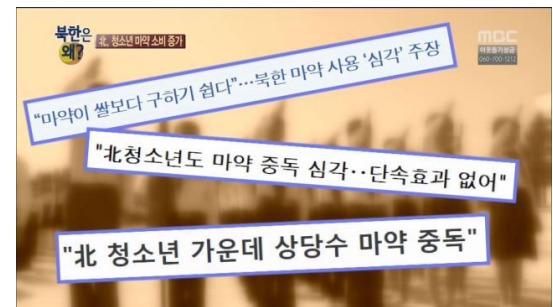




기도제목 5. 북한의 마약 근절을 위해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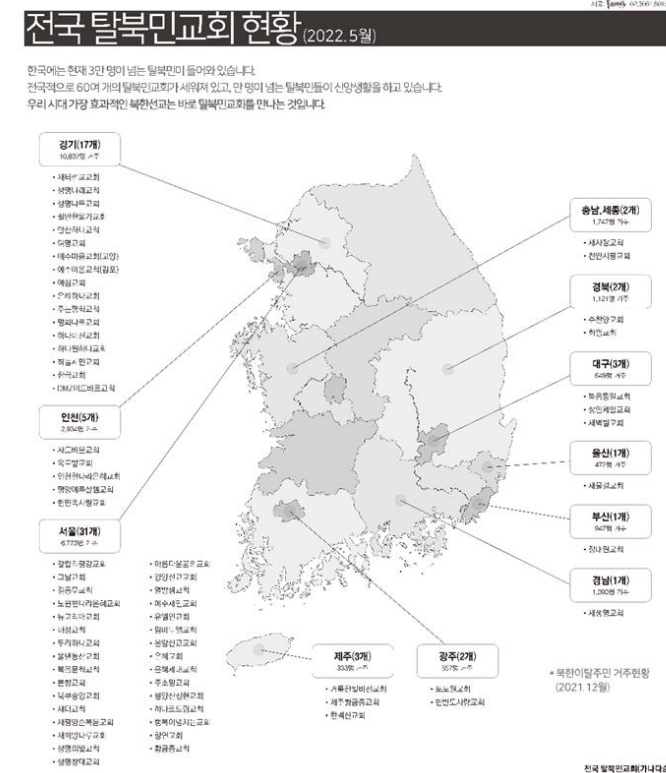
북한 주민들 사이에 빙두(필로폰)가 퍼지고 있습니다. 빙두는 배고픔을 잊게 해주고 각성 효과를 일으켜 주민들 사이에서 일종의 의약품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1년 마약범죄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마약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 없는 통제 일변도 대응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포정치로 인한 억압과 불안, 그리고 희망의 부재는 마약 사용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알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마약을 의료용으로 찾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마약으로 표현되는 북한 사람들의 공허와 영적 갈망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 펜데믹은 탈북민들에게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크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우울증으로 인한 탈북민 고독사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펜데믹 완화에 발맞춰 탈북민들과 만나고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된 교회와 사역자가 세워져야 하지만 탈북민 교회들은 코로나 시기 출석교인수 감소 및 재정 악화로 큰 타격을 입었고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의 탈북민 부서들도 대면 예배 중단 및 교회 여건 악화로 사역이 위축되었습니다.

탈북민 사역을 위한 목회자와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 기도가 꾸준히 이어져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illegible]



기도제목 7.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라디오 사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 당국의 대북방송에 대한 전파방해가 더욱 심해졌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라디오 복음 방송이 북한에 잘 전달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8.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와 통일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코로나 시국 장기화의 여파로 각 교회의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식어 있습니다. 선교 현장의 상황도 아직은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막혔던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대 속에서 선교의 일꾼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북한 선교와 통일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통일 이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가도록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선교 현장의 일꾼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현장에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